

일주 문



람사르총회 성공개회 기원대법회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10월 3일 오전 10시 창원 원흥사에서 열리는 '람사르총회 성공개회 기원 대법회'에서 법문한다.



유가심인당 도서관 문화축제 참가
진각종 유가심인당 주교 혜정 정사는 9월 20일 '제1회 도서관 문화축제 book & fun 2008'에 부설 화흥어린이도서관을 참가시켰다.



부천남부경찰서 금강보살수계법회
부천 대덕사 주지 성인 스님은 10월 15일 오전 10시 부천남부경찰서(법우회장 김성수 경위) 경승법당에서 금강보살수계식을 봉행한다.



'만남과 미래를 여는 가을여행'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일문 스님은 오는 10월 2일 ~ 11월 19일 '만남과 미래를 여는 가을축제-2008 여행'을 개최한다. (02)739-9501



군중교구에 행하 달기도 등 전달
법편사 주지 보경 스님은 9월 23일 법편사 대법당에서 군중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에게 철보사천왕상, 만다라 등 불화 15점과 불서 700부를 전달했다.



제5회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
일산노인복지관 관장 능인 스님은 제12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10월 18일 '제5회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031)919-8677



종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행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은 경로의 달 10월을 맞아 10월 8일 '종로구어르신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02)742-9500

부고

벽봉당 동일 대중사 영결식 봉행

칠곡 송림사 조실 벽봉당 동일 대중사의 영결식이 9월 19일 오전 11시 칠곡 송림사에서 제9교구장으로 봉행됐다. 각한 스님의 사화로 봉행된 영결식은 진제 스님(동화사 금당선원 조실)을 비롯해 원명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허운 스님(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前 동화사 주지)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예도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前 천태종 총무원장 석암 큰스님 입적

前 천태종 총무원장 석암 스님이 9월 19일 오후 세법 76세, 법랍 64세로 입적했다. 진언종 종정을 역임한 석암 스님은 통도사에서 출가했으며 정화개회 당시 활발한 활동을 했다.

“불교 발전 위해 최선” “종교편향 방지 제도화”

한나라당 불자모임 회장 이해봉 의원

“국회의원 불자모임 정각회를 도와 한나라당 차원에서 불교계 숙원사업 성취와 불교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 종교편향으로 불교 인재발사가 주목받는 때, 강석호, 이계진, 조문환, 주호영 등 한나라당 불자 의원 17명이 모여 '한나라당 불자회'를 결성했다. 9월 17일 제1차 모임에서 회장으로 추대된 이해봉 의원(대구 달서구·4선·사진)은 의정사상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고 평가받는 제17대 국회 정각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불자의원들의 의견을 국회 정각회에 전달해 여야가 함께 불교계 숙원사업과 불교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법을 제정 등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봉 의원은 불자의원들 중에서도 신심 깊은 불자로 유명하다. 이 의원은 “신심 깊은 모친을 따라 불교를 자연스럽게 생활로 체득했다”며, “저마다 불경 독송하던 어머니를 따라 대구 비슬산 기슭의 용연사를 오르며 불교를 접했다”고 회고했다.

이해봉 의원은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으로 지역구인 대구지역 민심이 더욱 귀기울이고 있다”며, “불교 소외 문제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사



태의 심각함을 느꼈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돼 (정부에 대한) 불자들의 불신을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깨달음과 배움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며, “실천에 옮겨 이웃을 감동시키는 것이 깨달음과 배움의 완성”이라고 설명했다. 이해봉 의원은 “불교가 대중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불교가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중생제도의 종교로 이 시대,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의연한 종교로 거듭나자”고 제안했다.

이해봉 의원은 “불교계 일각에서 불자의원들이 불교계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불자의원들의 불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을 만들어 가겠다”며, 불교계의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민주당 연등회 회장 최문순 의원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주당 불자의원모임 연등회 회장 최문순 의원(사진)은 9월 23일 연등회 창립을 겸해 “스님들과 신도들이 대규모로 항의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은 정치권에서 종교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이다”며 “빠른 시일내에 공직자 종교편향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교계 정치참여에 관해 최 의원은 “불교계는 정교 분리의 민주주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일반원칙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방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불교계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 또한 중생을 위한 보시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9월 29일 민주당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불교10대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실천위원회를 구성 ▲남북불교 교류사업 지원 ▲전통사찰규제 완화 ▲기타 환경관련법 개정 및 불교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민주당 연등회 활동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연등회는 2006년 새천년국민회의 불자모임을 토대로 한다. 최문순 의원은 강원도 춘천 출생



으로 전국언론노조 초대 위원장, MBC 대표이사 사장, 제13대 한국방송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2008년 제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국회 정각회 민주당 측 간사로 활동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영 미디어랩 도입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다.

민주당 첫 불자의원모임인 연등회는 불교용으로 ‘청정하게 피어난 한송이 연꽃, 오막약세의 말법시대를 비추는 연등’이라는 뜻이다. 불자의원들의 신행공동체를 형성하고 불교계와 정책공조를 위한 이번 연등회는 최문순 의원을 회장으로 강창일, 김상희, 박주선, 박선숙, 이광재, 정국교, 추미애, 최재성, 김성근(원불교) 의원이 참여했다. 향후 연등회는 친불교 성향 의원을 포함한 조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서초구청불자회 정우 스님 초청법회 봉행



서울 서초구청 불자회(회장 이동우)가 9월 26일 낮 12시 정우 스님(통도사 주지)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불자회는 이날 법회를 계기로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정기법회를 갖기로 했다. 임연태 기자

영진 스님 군포교 발전기금 10억 기탁



영진 스님(대전 선정사 주지·왼쪽)은 9월 25일 군포교구장 일면 스님에게 군포교 발전기금 10억원을 기탁했다. 영진 스님은 20년 넘게 국군통신사령부 통행사군법당에서 청정포교에 애진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생활불교조계종 영양군에 쌀 50포대 보시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은 9월 9일 추석을 맞아 경북 영양군 영덕군수에게 쌀 50포대를 전달했다. 생활불교조계종에서 보시한 쌀은 영양군내 불우한 독거노인과 장애 가정에 나눠졌다. 노덕현 기자

제17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성료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제17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9월 24일 개최했다. ▲역경상-정순원(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예술상-김혜옥(불자 탤런트) ▲특별상-(사)고요한소리 등이 수상했다. 가연숙 기자

청주BBS 현우 스님 사장 취임법회 봉행



청주불교방송 제6대 사장 현우 스님 취임법회 가 9월 24일 청주선프러자컨벤션센터에서 봉행했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청주불방 운영위원장 노현 스님(법주사 주지), 각의 스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해철 충청지사장

“요가는 禪 차원에서 수련해야죠”

현천 스님 서울에 '아헝가요가센터' 개원

대구 청량선원에서 아헝가 요가를 보급하고 있는 현천 스님(사진)이 서울 강남에 요가센터를 개원했다. 8월 19일 개원식을 가진 아헝가 요가센터는 강남 교대역 인근(6번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 기본반, 새벽반, 호흡 명상반, 휘트니스반, 매디컬반, 강화반, 지도자반, 어린이반, 성직자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특히 성직자반은 스

님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전문 요가를 배우는 코스다. 대구 청량선원에서 스님들을 위한 요가 코스가 인기리에 진행됐던 점을 감안, 서울의 요가센터에서는 더 문을 넓혀 종교에 관련 없이 성직자들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동안 불연 요가 열풍이 다시 식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건강요가라는 점에 국한된 요가만 보급됐기 때문입니다. 정확성을 요구

하는 스탠딩 및 역동적인 자세가 거의 없어서 꾸준히 하면 건강에는 좋을지 몰라도 휘트니스 선의 개념은 접합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단조롭고 지루한 것을 극복하기 힘든 것입니다.”

현천 스님은 ‘아헝가 요가’는 기존의 건강 요가와 달리 휘트니스와 선의 개념이 포함된 요가란 점을 강조했다. 스님은 “정확한 자세와 호흡법과 올바르게 조정된 자

세의 순서 그리고 보조 도구의 사용을 통한 요가의 근대화 등이 아헝가 요가의 특징”이라며 “의학과 과학의 바탕 위에 고안된 아헝가요가는 치료효과와 명상 효과 등을 높여주고 행위 속의 명상을 통해 요가를 선의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힘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10월 1일부터 운영되는 모든 코스를 현천 스님이 직접 지도할 계획이다. (02)599-8150. www.yogaco.kr



임연태 기자

한국의 민중의술계에서 신화 같은 기적을 일으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스님은 누구인가?

칠대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 이겨 13세부터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8세가 된 이 시간 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떠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정신수련 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에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어떻게 하나 1.2.3권 저자 전 울산 지방법원 황종국 부장판사가 현직에 있으면서 민중의술신문 2006년 12월 7일 10면과 11면, 2007년 1월 31일자 8면과 9면에 민중의술 명의열전 “김영생과 천의선도” 천의선도는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다 라는 제목으로 안내되었던 천의선도 창도자 김영생 대한신불교천우종 포교원장 삼봉(三奉)승이 대덕고승님 앞에 감히 권유의 말씀 올립니다.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달래주고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며 부처님 뜻으로 인류평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천의선도는 전수받는 순간부터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를 축감으로 느껴볼 수 있으며 시험에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0년 두통 환자가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려 나갑니다. 당신의 머리 백회를 통하여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가슴에 시들던 초목이 이슬비 맞으면 싱싱해 지듯이 모든 세포가 활성화될 이롭니다. 천의선도 수련을 몇 시간 계속하면 당신의 손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밑에서는 벌여지고 위에서는 자석의 당기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손이 오르라 들면서 이 신비속에 접어들지 얼

마간이 지나면 감기를 들었을 때 콧물이 주르륵 흐르는 느낌이 들고 나면 수련자는 무아상태에 들어갑니다. 앞마마 안쪽에서 물린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삼매경에 들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30여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차는데 삼키면 또 차고 삼키면 또 차는데 천상영계에선 이 침을 생명의 감로수라 하고 현대의학으로 보면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이 분비되지 얼마간이 지나면 회열의 환희속에 접어들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건지 나의 의무와 사명감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됩니다. 엔돌핀은 물핀의 200배 진통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치유능력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모든 병의 원소가 소멸되고 병든세포가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이 영계의 메시지인데 천의선도를 17년간 전수시키다 보니 낳으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손발이 뒤틀린 20대 여성이 수련 2년만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뇌종양환자 간암환자 식도암환자 폐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10여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중풍으로 5년간 누워 계시던 한의학 박사님이 수련 5개월만에 정상으로 회복되어 의료업에 종사하고 30년 두통환자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견비통 위하수 이명증 생리통 요실금 전간(간질병) 전립선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수련시키면서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2.3차 주입시켜 주었더니 신화같은 기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 체험을 해봤는데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대덕고승님 제 나이가 78세입니다. 이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시

킬 수가 없어 내 의식이 생활할 때 천하제일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전 인류에 봉사하며 살자고 이 글을 올립니다. 이 치료법은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하늘의 의술입니다. 일반인에게 공개하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염려도 없이 스님들에게만 안내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노승을 시험해 보시고 믿어지거든 고정관념 싹털 털어버리고 종파를 초월해서 노승을 찾아 주시면 천의선도 전수식부터 조상전도식 기적의치료법 선단체조법까지 3박4일이면 천하제일의 명의로 환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성 소양증과 탈모도 방지되는 비누도 개발되어 시험을 끝마쳤습니다.

- 수련장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천의선도 전수도장
- 연락처 : 010-4933-4528
 - 1차 : 11월 13일 오후 1시 개강 - 16일 12시 수료식
 - 2차 : 한국 땅에서 마지막 강의 - 11월 20일 1시 개강 11월 23일 12시 수료식
- 전수비 + 환신비 + 교재비 : 150만원
- 내선침 값 500개 : 50만원
- 저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00년 사상의학 팔상체질 분류비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리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